

물론, 인간 역시 동물적인 차원의 諸屬性을 공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限 이들의 이론이 전적으로 부당하다거나 잘못된 것으로 판단해 버리는 것 역시 중대한 잘못이며 독단이다. 그러나 보다 완전하며, 정확한 학습이론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인간존재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와 아울러 종교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의 총체적인 모습이 밝혀져야 할 것이며, 그 바탕 위에서 학습현상이 설명되고 학습이론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참된 인간관이라는 것은 바로 참된 신관의 정립에서부터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구조 역시 학습이론구축에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필수적인 요인임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부교수. 교육학박사)

[참 고 문 헌]

1. 張 秉琳, 學習心理學, 서울:博英社, 1973.
2. J 淳睦, 教育的 철학적 기초.
(영남대학교 교육학연구실편, 교육학의 기초, 서울:正益社), 1978.
3. Bigge, M. C, Hunt, M. P. *Psychological Foundations of Education*,
New Yark: Harer International Edition, 1969.
4. Boelke, R. R. *Theories Learning in Christian Educatio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2.
5. De Jong Noman, *Education in the Truth*,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C. O. 1974.
6. De Wett, M.J. J. Monteith J. L. van der Westhuizen, G. J., *Opvoedende
leer*, Durban Butterworth, 1981.
7. Hilgard, E. R. *Theories of Learning* New york: Appleton-Century-
Crofts, 1967.
8. Jaarsma, Cornelius, *Human Development, Learning and Teaching*.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 Co., 1961.
9. Mowrer, O. H. *Learning Theory and Beha or*, New york: John Wiley &
Sons, 1960.

이슬람교의 한국포교와 기독교의 대응책

김 철 봉

서 론

교회가 설립된 이후부터 기독교회는 계속하여 선교적 사명을 수행해오고 있다. 그 결과 오늘날 십억이 넘는 인구가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선교의 길이 굳게 닫혀 있는 곳이 바로 공산국가와 이슬람국가이다. 어떤 면에서는 공산국가보다도 이슬람국가의 선교는 더욱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 그러나 '온 백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비추어 볼 때 이슬람국가도 우리가 말씀을 전파해야 할 場(field)임에 틀림없다.

이슬람교는 그들 특유의 왕성한 선교정신으로 오늘날의 기독교계를 위협해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특수성을 이용하여 그들의 세력을 점차 확대해가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한국내에서의 포교활동 상황을 살펴보고 우리의 대응책을 찾아보고자 한다.

1. 한국에서의 이슬람교 포교활동

1. 한국 이슬람교의 역사¹⁾

1) 초기단계 (1953년 한국동란휴전~1958년)

한국 이슬람교의 역사는 1950~53년까지 계속된 한국동란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당시 UN군의 일원으로 참전한 Turkey군에는 상당수의 이슬람교도가 있었는데 이들을 통하여 한국에 이슬람교가 소개되기 시작했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도 Turkey군의 일부는 UN군으로서 계속 남게 되었는데 그들 가운데 압둘라흐만과 주베르코취 형제가 열성적으로 포교활동을 전개하던중 마침내 1955년 9월에 이슬람 선교사인 Animam씨가 주한 Turkey군 신자와 30여명의 한국인 신자의 신앙지도를 위하여 서울에 들어 왔으니 공식적인 이슬람선교 역사의 장이 펼쳐지게 되었다.

Animam의 한국 입국 한 달후인 1955년 10월에 한국 이슬람교도 윤두영 등이 주도하여 50여명의 한국인 신자들로 「한국 이슬람 협회」를 조직하고 회장에 김진규, 사무총장에 윤두영씨가 취임하고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의 市有地에서 Turkey軍 部隊의 천막을 빌려 예배를 보기 시작하였다.

2) 준비단계 (1959년 이슬람교 회장의 이슬람권 순방—1969년 이슬람교 중앙연합회 발족)

1959년 11월, 김진규회장이 이슬람권을 순방하고 한국의 이슬람교 현황을 소개하였으며 1962년 2월, 한국 이슬람교도 11명 (남8, 여3)을 선정하여 Malaysia의 클람 이슬람대학에 파견하여 6개월간 이슬람 지식을 연수시킨뒤 귀국하여 이슬람포교활동에 참여하게 하였다.

1963년 11월, Malaysia의 동크라만수상이 한국성전 건립기금으로

3만 3천불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1965년 4월, 한국이슬람교 중앙연합회를 보완하고 회장에 여정길, 사무총장에 이화식씨를 선정 하였으며 1967년 6월, 한국이슬람교 중앙연합회에서 「이슬람 헤랄드」지를 발간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과정에 거쳐서 1969년 3월에 재단법인 한국이슬람교 중앙연합회를 정식 발족시켰다.

3) 도약의 무대 (1970년 한국중앙성원 건립착수~현재)

1970년 9월, 박정희대통령이 서울 한남동소재 시유지 1,500평을 한국중앙성원 건립부지로 허락하여 1976년 5월, 전세계 이슬람국가 대표 51명이 참석하여 한국 이슬람교 중앙성원 개원식을 거행하고 동시에 이슬람 센터도 개원하고 “소수 무슬림 국가에 있어서의 이슬람포교”라는 주제로 국제 이슬람세미나를 개최하였고, 1977년 7월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명지대학교에 Muslim학생회를 조직하게 되었다.

1978년 3월, Saudi Arabia에 진출한 한국 근로자들을 상대로 선교활동을 전개하기위하여 Saudi 정부의 도움으로 Jeddah에 駐Saudi Arabia 이슬람센터를 설치운영 (지회장 : 전기정) 하기 시작하였다.

1978년 4월, 경기도 광주군 쌍룡리마을 주민들이 자진하여 이슬람교로 귀의하여 광주 분원을 설립하였고, 1978년 10월에는 한국 이슬람교 사상 최초로 132명의 대규모 성지 순례단이 Mecca를 참배하고 Saudi의 파드 황태자를 방문, 지원을 요청하였다.

1980년 5월, Saudi Arabia를 공식방문한 최규하대통령이 할리드 국왕과의 공동성명발표시 한국 이슬람대학건립을 위한 대지 확보지원을 약속하였으며, 그해 7월 한국정부의 지원으로 경기도 용인에 국유림 13만평을 이슬람대학 대지로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9월에는 부산성원 준공식을 거행하였으며, 경기도 용인에서 남덕우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 이슬람대학」(가칭) 건립기공식을 거행하였다.

2. 한국포교를 위한 다양한 전략들.

1) K. M. F. (한국이슬람교 중앙연합회)편찬, 한국 이슬람 25년사, (서울 : K. M. F., 1980), p. 36.

1) 국내 이슬람성원 및 특수기관들²⁾

① 서울중앙성원 : 용산구 한남동 732-21 대지 1,500평 공사비 1963년 화폐로 \$ 33,000, 1976. 5준공

② 부산성원 : 동래구 남산동 30-1대지 633평, 공사비 4억 8천만원 (리비아에서 제공), 1980. 9. 12 준공

③ 광주성원 : 경기도 광주읍 역리 48-9

④ 한국 이슬람 대학

a. 위치 :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초부리

b. 대지 : 130,000평 (한국정부에서 기증)

c. 학교규모 및 학제 : 4개의 단과대학(인문대, 법정대, 상경대, 어문과대)에 이슬람법률학과를 비롯한 15개학과에 입학정원 3,200명

d. 공사내용 : 총공사비 \$ 700만(42억원)로 1980. 9. 14 착공하였으며 1982. 9월 완공예정

⑤ 재단법인 한국이슬람교 중앙연합회(K. M. F. =Korea Muslim Federation)³⁾ 재단이사장(이화식) : 서울 용산구 한남동 732-21, C. P. O. Box 2865, Tel. 793-6908, 794-7307

그리고 K. M. F. 산하에는 다음과 같은 부속기관 및 부서들이 조직되어 효과적인 한국 포교활동을 위해 다양한 전략들을 모색하고 있다.

a. K. M. F. 회장 직속 4개 특별협의체 : 무슬림 학생 협회의, 아랍어 연구소, 한국 이슬람 헤랄드, 무슬림 청년 협회의.

b. K. M. F. 사무국 직속 7개 특별위원회 : 대학연구위원회, 특수기획위원회, 한국 이슬람 헤랄드 편집위원회, 아랍어 연구소 운영위원회, 이슬람센터 운영위원회, 선교활동 및 이슬람 출판위원회, 도서관 운영위원회,

c. K. M. F. 사무국산하 8개 분과 : 연구분과(코란班, 샤리아

트班), 선교분과, 문화분과, P. R. 분과, 결속분과, 청년분과, 대학분과, 부녀분과.

d. K. M. F. 산하 4개 지회 : 부산, 광주, Jeddeh, Kuwait

e. K. M. F. 이사회

f. K. M. F. 실행위원회

2) 多様な 布教戰略

이슬람교의 서울을 비롯한 한국 침투야망은 대단히 야심적이다. K. M. F.가 1980년 8월에 발간한 「한국 이슬람교 25年史」에는 한국이 이슬람교 포교대상으로는 매우 이상적인 토양을 갖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확실히 서울은 앞으로 이슬람교 포교 대상으로서 가장 중요한 표적이 될것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서울은 인구 800만을 지닌 세계 제 8위의 대도시로서 대한민국의 수도이다. 그리고 서울이 지니고 있는 특수성으로는 한국의 정치 심장부요, 문화, 사회, 교육의 중추적인 도시이기 때문이다.”⁴⁾

K. M. F.의 발표에 따르면 1980년 8월 현재 한국의 등록된 이슬람교 신자수는 국내외 13,000명(부산지방에는 1,000명)이며, 해외에 6,000여명으로 모두 19,000명이 된다고 공식 발표하였다.⁵⁾ 이 숫자는 아직 미미한 것이지만 상당한 조직과 구체적인 포교전략을 세우면서 도전해오는 이슬람교의 한국선교 전망은 한국정부의 특수한 대외정책과 국제적인 이슬람세력의 기류를 타고 상당한 가능성을 예견해 주고 있다. 에너지자원의 빈곤에 허덕이는 한국정부는 외교정책의 비중에 있어서 이슬람국가들인 중동 산유국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으므로 외교 및 경제정책의 특수성을 가장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슬람권은 다각적인 전략을 가지고 한국에서의 이슬람교 팽창을 추구하기 위하여 강력한 공세를 가해 오고 있는 것이다.

2) Ibid, pp. 16~17, 8~9. 37.

3) 이하 K. M. F. 약칭으로 사용함.

4) Ibid, p. 10.

5) Ibid, pp. 16~17, 1978년 한햇동안 K. M. F. Jeddah 지회는 전체 Saudi 지역에서 1,004명의 한국노동자들을 결신시켰다는 놀라운 보고가 발표되었다.

현재 K. M. F.가 한국 포교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선교전략들은⁶⁾ ① 정기적인 Koran과 Hadith 공부 ② 아랍어 강좌 개설 ③ 이슬람 문학발표회 ④ 이슬람 예술 전시회 ⑤ 이슬람 교리 공개 강좌 ⑥ 이슬람 선교 세미나 개최 ⑦ 어린이 일요 Koran교실 개설 ⑧ 한국 Muslim학생의 이슬람국 대학유학을 통한 이슬람연구 강화로 포교, 전도자로 양성 ⑨ 학생포교운동 강화 및 재정적, 행정적 지원 ⑩ 청년포교운동 강화 및 재정적, 행정적 지원 ⑪ 부녀 포교운동 강화 및 재정적, 행정적 지원 ⑫ 마스크 선교 강화 ⑬ 비무슬림가족 방문을 통한 선교활동 ⑭ 신도수 배가운동 등이 있다.

3) 장기적인 포교전략

K. M. F.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포교전략외에 미래를 위한 장기전략을 세워 놓았다.⁷⁾

- ① 이슬람대학 설립을 계기로 한국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선교운동 전개
- ② 농촌지역 집중전도를 통한 Muslim인구 배가운동
- ③ 대학사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Muslim청년운동을 증진시켜 젊은 Muslim양성
- ④ 성 Koran의 한국어 번역을 촉진
- ⑤ 조직적인 이슬람 교육실행을 통한 한국 Muslim들의 이슬람교 지식 증진도모

이와같은 이슬람교 한국본부의 장기 선교전략을 우리 입장에서 냉정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포교전략은 기독교가 초기 한국에서 시도해 왔던 선교방법과 너무 흡사하다. 사실 한국교회는 위와같은 선교방법들의 단계를 밟았으며 또 그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기독교 학교를 설립, 교육을 통한 기독교 선교는 한국교회가 거둔 최대의 성공적인 선교방법중의 하나

나왔다. 이제 한국의 이슬람교는 지금 건립중에 있는 한국 이슬람대학을 중심으로 교육을 매개체로한 선교전략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한국교회가 농촌을 집중적으로 파고 든 선교방법은 큰 성과를 거두었다. 오늘의 한국교회 부흥의 배경에는 농촌교회의 인적, 물적 자원공급에 힘입은 바 크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사실을 포착한 이슬람교는 이 선교전략을 당연히 채택한 것이다.

Koran의 한국어 번역은 이슬람교 자체법률상 난점이 있지만 선교적인 측면에서 이를 묵인할 것이며 멀지 않아서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Koran의 한국어 번역과 조직적이고도 헌신적인 이슬람 교리 연구 등에 선교역량을 총동원하여 투입시킨다면 이슬람교의 성장면에는 긍정적인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그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제 이색적인 옷을 입고 이색적인 내용과 형태를 가지고 한국 기독교를 향하여 대결해 오는 이슬람교의 도전앞에 우리는 전열을 가다듬고 대응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 한국교회의 대응책

미국의 Adoniram Judson(1788~1850)은 최초의 선교 선교사로서 Burma에 가서 심혈을 다 쏟아 5년간을 선교하였으나 겨우 한명의改宗者를 얻어 세례를 주었다.⁸⁾ 그는 회고하기를 “Burma에서 改宗者 1명을 얻는 것이란 살아 있는 호랑이의 송곳니 빼는 일과 같았다.”고 했다. 또 영국의 Francis Thomas McDougall 선교사는 1847~51년 사이에 브루나이섬에서 선교활동을 하였는데 5년간 겨우 다섯명을 改宗시켰다. 그리고 화란의 Utrecht Missionary Union (Utrecht 선교연맹)은 역시 브루나이에서 1861~86년까지 15년간을 선교하여 겨우 20명의 신자를 얻었는데 이들을 위해 죽어간 선교사들의 숫자가 더 많았다.⁹⁾ 확실히 異教 세계에서의 선교는 용이한 일이 아니다.

6) Ibid, p. 37.

7) Ibid.

8) S. Neill, *Christian Faith and Other Faiths*, (London: Oxford Univ., 1970),

9) Ibid.

근래에 더욱 강경하게 기세를 펼치는 이슬람권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선교를 시도해왔지만 그 실적이 부진했던 원인을 살펴보면 이슬람 문화권에 전래된 기독교복음이 서양화의 각색으로 인한 서구적 기독교 복음이었다는 비판을 주의깊게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복음은 대상지역 주민들의 정신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기초로 하여 전파되어야 한다.¹⁰⁾ 이슬람권을 향한 기독교 선교사를 들춰보면 우리는 이슬람민족들의 문화를 너무나 모른채 무분별한 물리적인 선교정책을 시도해 왔다. 즉 16세기에 이르러 서구의 세력은 해외로 확장되었고, 그 결과 다시 한번 동양에서 이슬람과의 큰 충돌을 낳게 되었다. 이 충돌은 19세기에 이르러 식민주의의 급격한 진보와 함께 더욱 심해졌으며 결국 20세기의 있어서의 반서구 민족주의(antiwestern nationalism)를 발생시켰다.¹¹⁾ 그래서 매 세대마다 기독교와 이슬람교와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어 왔고 오늘날에 와서는 상호이해를 위한 어떤 노력보다도 오랫동안 지속되어왔던 역사적인 편견(historical prejudice)이 서로의 감정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¹²⁾

이 시점에서 한국교회의 이슬람권을 향한 역공수는 한국과 이슬람세계의 특정한 정치, 경제관계를 배경으로 상호보완성을 인식하고 있는 점에서 착안되어야 할 것이다. 즉 한국과 이슬람권의 많은 나라들이 다방면에서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세기 이후 백인 기독교는 선교의 종말을 고했다고 볼 수 있다. 이슬람권을 비롯한 소위 제3세계에서 백인의 하나님은 통하지 않는다. 그럼 거기에는 누가 갈 것인가?

세계에 나가있는 한국교포는 제2의 유대인이라고 하여 그 경제적 자립정신을 경이로운 눈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특히 중동을 비롯한 이슬람권에 진출해 있는 한국인들을 통하여 한국은 모범적인 경제성장국으로 좋은 인상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

10) Ibid. p. 301.

11) G. E. Marrison, *What is Islam?*, p. 68.

12) Ibid.

선교에 있어서 이 마지막 세대를 감당하는 선교의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저 이슬람 석유의 사막에 어떤 방법으로, 누가 갈 것인가?

확실히 개신교의 선교는 조직적인 체제속에서 일어난 운동이 아니며 영적인 신앙운동에서부터 일어났다. 이제 백인의 선교세기는 막을 내리고 세계를 향한 선교의 사명은 한국교회 앞에서 무르익어 가고 있다. 이제 우리 기독교는 지구를 한바퀴 돌아 오랫동안 실패에 실패를 거듭해 왔던 이슬람권을 향하여 총진군을 해야 할 시대에 돌입했으며, Jerusalem으로 집결하는 최후의 선교 과정에 이르렀다고 본다면 20세기 말의 한국 교회의 사명은 무엇보다 이 선교적 과제를 완수 하는데 있는 것이다.

1. 소극적 대응책

1) 평신도교육 강화

우리 개신교는 Roman Catholic교회와 달리 교회의 비중을 평신도에게 둔다. 평신도를 튼튼하게 육성시켜 놓아야 교회의 미래가 튼튼할 것이다. 우리 교회들은 다음과 같은 교과 과정으로 일반적이고평이한 수준에서 평신도들에게 ① 체계적인 성경공부 ② 기독교 기본 교리 교육 ③ 기독교회사 개관 ④ 비교종교론 입문 ⑤ 전도론 등을 교육시킬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설정해야할 평신도교육의 총족도 상한선은 평신도들이 기독교 신앙의 유일성과 진리성에 대한 확고한 자세견지와 함께 타종교의 신자를 압도하는 신앙의 확신과 신앙의 활력있는 생활화에 있다.

사실 한국교회는 지금, 보다 덜 중요하고 덜 시급한 일들때문에 진정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들이 뒤로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¹³⁾

2) 한국선교 강화

한국교회의 앞날은 학원선교의 승패여부에 달려있다고 보아진다.

1980. 9. 29일 현재 한국의 대학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한국에는 89개의 4년제대학, 11개의 교육대학, 128개의 전문대학등 모두 228개의 대학이 있다.¹⁴⁾

그리고 이들 대학이 해마다 모집하는 입학정원은 모두 306,880 명으로 2년 또는 3년제 전문대학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의 대학캠퍼스에는 항상 1백만명이나 되는 한국의 젊은 엘리트들이 기독교 선교의 대상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결론이 나와진다. 하나의 identity가 이렇게나 큰 집단을 이루고 있는 경우는 한국사회에서 학원과 군대밖에 없는 것이다. 군대는 다행이 6·25동란과 더불어 공식적인 기독교 선교의 문이 열려 군목들이 종군하면서 선교를 해오고 있으므로 염려할 것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학원을 향한 한국교회의 선교전략은 아직도 산발적이거나 미숙한 상태이다. 우리가 여기서 특히 학원선교라고 할때 대학을 중심으로 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초·중·등학교는 여러가지면에서 선교활동의 다양성을 기하기에는 난점들이 많은 반면 대학은 거의 완벽한 접근을 할 수 있는 특수한 곳이기 때문이다

이미 앞장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한국 이슬람교 역시 현재와 장래의 포교전략에 있어서 대학선교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기독교 선교역사면에서 살펴볼때 학원을 통한 선교전략은 1706년에 독일 경건주의 선교사들인 Ziegenbaly와 Plutschau가, 1816년에는

13) 고신대학의 하도래 선교사는 「한국교회가 선교적 차원에서 주의할점」이라는 그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국교회는 교회모임과 건물과 설교를 강조해왔다. 이는 자칫 불신자의 선입감에 기독교란 위 세가지가 전부인줄로 여기게 만들었다. 성경은, 교회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곳이라고 강조한다. 교회의 제도화된 구조나 분쟁은 교회 본연의 사명과 의의와는 너무나 엉뚱한 길을 걷고있는 결과가 된다.”

하도래, “기독교문화와 복음의 확장.” 고신대 논문집 제8집, (부산: 고신대 출판부, 1980), p. 34

14) 1980. 9. 29 대한민국 문교부 발표.

Chales T. E. Rhenius가 이를 제창하고 시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지금 한국의 대학가에는 한국 대학생선교회(C. C. C), 네비게이토 I. V. F., U. B. F., K. S. C. F., S. F. C. 등의 대학선교 단체들이 나름대로 활동을 펴고 있지만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볼때 대학생선교정책의 미숙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차과 대책마련을 심각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3) 기독교 문화를 통한 복음의 확장

지금은 또한 문화, 예술 및 매스컴을 통한 선교전략을 시도할 때이다. 복음은 문화를 거부하지 않는다. 복음은 문화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민중의 마음속에 침투해 들어갈 수 있다. Costas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교회는 모든 문화의 사람을 포용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 교회는 그들 각자의 문화를 부요하게하며 그들의 재능과 능력에 깊이를 더해주며 그들에게 풍요한 인간성을 회복케 한다.”¹⁵⁾ 그러므로 알차고 풍요한 기독교 문화의 진작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효과적인 선교를 펼쳐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모든 신자들에게 자신의 영 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세와 기독교 문화의 풍요한 인간성을 무기로 생기찬 선교의 역군들이 되도록 키워야 할 것이다. Klass Schilder 교수는 *Christ and Culture* 라는 그의 책을 통하여 예수님을 문화의 구속주며 갱신자로 보고 있다.¹⁶⁾ 그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다.

“목적론적으로 나아가는 문화를 이룩하는 것은 개인적인 직무가 아니라 오히려 강한 교제의 직무이다. 그러므로 성도의 Koinonia에 관련된 우리의 신앙고백은 역시 문화를 위해 의미를 제시하는 것이다.

15) 하도래, *op. cit.*, p. 36.

16) *Ibid.*

“목적론적으로 나아가는 문화를 이룩하는 것은 개인적인 직무가 아니라 오히려 강한 교제의 직무이다. 그러므로 성도의 Koinonia 에 관련된 우리의 신앙고백은 역시 문화를 위해 의미를 제시하는 것이다. 교회의 문화적인 작업은 온 세상앞에서 다음이라 한다.....교회는 간접적으로 가장 위대한 문화적인 힘이 되어야 한다.”¹⁷⁾

2. 적극적 대응책

1) 이슬람권 선교의 미세한 빛

역사의 틈나바퀴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법이 없다. 지금 이슬람세계에도 역사는 변혁되고 환경도, 지극히 미세하지만 점차 바뀌어가고 있다. 서방측의 외부로부터 가해졌던 종교적, 정치적, 군사적, 문화적 및 정신적인 압박을 말끔히 씻어낸 1960년 이후 이슬람은 새로운 서방측의 문화적 도전앞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¹⁸⁾ 이번에는 적이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전은 그만큼 한층 더 위험하였다. 적이란 바로 도시화, 기술적 진보, 풍부한 소비사회, 인간 집단과 같은 개념으로 표현되는 복합세력이며 이 도전은 앞으로도 여러 세대에 걸쳐 계속될 것이라고¹⁹⁾ 그들은 전망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도전들을 잘 활용하여 적극적인 전략을 펼쳐나가야 하겠다.

① 이슬람이 두려워하는 청년문화

이슬람교의 대표적인 종교지도자인 Khomeini의 다음과 같은 말은 이슬람교 당국이 서구문화를 얼마나 혐오하며 경계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서구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그 음악속에는 쾌락과 흥분과 마약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나는 -Bach, Beethoven, Verdi -그들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²⁰⁾ Khomeini 는 이슬람 청년들이 western-style, 특히 western-music 에 심취

17) *Ibid.*, p. 38.

18) G. H. Jansen, *이슬람의 도전*, 조형준역(서울, 신현실사, 1980), p. 127

19) *Ibid.*

되고 있는 모습을 매우 부정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그는 서구음악을 비롯한 서구문화가 이슬람사회와 국가, 나아가서는 이슬람교를 파괴하는 도전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독소와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²¹⁾ 그래서 Khomeini를 가리켜 ‘Transistor-Radio 를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²²⁾ 오늘날 이슬람은 “이 Transistor 혁명은 역전시킬 수도 없을뿐만 아니라 또한 여기서 도망칠 수도 없다”고 한숨을 쉬면서 서서히 쇠도해오는 서구문화로 인한 이슬람 청년문화를 향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들이 청년문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이 도전은 갈수록 더욱 격화되고 있기 때문인데 즉, 수백만명의 젊은 Indonesia, Iran, Turkey, Saudi Arabia, Algeria, Kuwait 등의 청년들이 외국으로 유학하여 서구의 청년문화를 그대로 직수입해 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슬람교 지도자들은 ‘Koran 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주창하고 있지만 뜻있는 이슬람 지식인들은 Koran의 원초성으로 복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더 멋있는 무엇인가가 서구화된 젊은 이슬람 세대의 문제에 대한 회답이 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의견을 모은다.²³⁾

외국 유학을 하고 있는 이슬람권 학생들은 특히 서구사회의 종교의 자유분위기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²⁴⁾ 전세계를 통틀어보아 식자는 무식자보다 좀더 관용적이다. 서구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이슬람 청년들이 많아질수록 신교자유의 정신(the spirit of tolerance)은 이슬람 세계에 확대될 것이다.

20) Time, January 7, 1980. p. 13.

21) G. H. Jansen, *op. cit.*, 128~129.

22) *Ibid.* p. 131

23) *Ibid.*, p. 132.

24) J. Hebert Kane, *A Concise History of the Christian World Mission*,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8), P. 118.

이슬람국에는 종종 자기들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독교 선교활동을 중지시키나 억압하라고 하는 민중들의 여론적인 압력이 당국자들에게 돌아온다. 그런데 이슬람 선교사들은 바로 그시간에 기독교 국가에서 지극히 자유롭게 이슬람선교활동을 펴고

② 신장되는 인권

U. N. 이 채택한 인권선언문의 제18항에는 ‘모든 사람은 사상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향유한다. 이 권리는 자신의 종교나 신앙을 바꿀 수 있는 자유와 개인적으로 또는 단체로, 공적으로나 또는 사적으로 자신의 종교나 믿음을 가르치고, 실행하고, 예배하고 준봉하는 자유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여 종교의 자유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다. 많은 이슬람국들도 이 선언문에 서명을 하였다. 우리는 이슬람국들도 바로 이 선언문에 서명을 하였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그들이 이 조항을 아직도 구체적으로 적용하지는 않고 있지만 하루 속히 그렇게 되어질 날이 오기를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다. 碩學 Arnold Toynbee는 “지성과 능력을 소유한 지식인들이 자기들의 유산으로 물려받은 종교에만 맹종할 것이 아니고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였다.”²⁵⁾ 고 역설하였다. 이와같은 말은 우리보다 이슬람국들에게 더 필요한 말이다. 이슬람국 정부들은 더 이상 그들 국민을 어리게 취급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슬람국가들도 그들 국민에게 종교의 자유라는 인간의 기본권을 부여해야만 할 시간은 가까와 오고 있으리라.²⁶⁾

③ 기독교의 방송선언 침투

많은 이슬람국가들이 Transistor Radio 혁명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 Massmedia는 우리 기독교의 방송선교에 결정적인 협력자가 되고 있다.

Sicily, Monaco, Cyprus, Monrovia 등지에 있는 강력한 출력의 우리 기독교 방송국들은 매일 이슬람세계를 겨냥한 선교방송 program 들을 보내고 있다. 많은 이슬람방송들이 집안에 앉아서 기독교의 복음을 듣고 있으며 매주 관심과 축복이 담긴 감사편지가 이들 방송국에 쇄도하고 있다.

있다. 이러한 모순을 이슬람의 청년문화층에서 적시할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랄뿐이다.

25) *Ibid.*26) *Ibid.*

④ 성경 통신공부

1960년대에 Morocco의²⁷⁾ 복음주의 선교사들은 지방신문을 이용하여 기독교에 관한 통신강좌를 시도해 보았다. 이 일은 이슬람권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된 희귀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담당자들은 반응을 기대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18,000명 이상이 요한복음 강좌를 신청해왔을때 그들의 놀라움이란 대단하였다.²⁸⁾

몇해후 북 Africa 선교부는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Tunisia 에서 2만명의 응답자를 얻었으며, Iran에서도 유사한 경험을 가져보았다. 비슷한 보고가 Bangladesh로 부터도 들어왔는데 이슬람교와 Hindu 교파가 각각 절반인 5만명의 학생들이 1960년이래로 성경통신 강좌에 등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슬람세계의 영혼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심각하게 갈급해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강력한 시사이다.²⁹⁾ 이와같은 이슬람세계에 진정한 종교의 자유가 부여된다면 수많은 이슬람교도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⑤ 이슬람권 선교의 문은 열렸다간 닫히곤 한다. 실로 이슬람세계는 변화무쌍한 나라들이다. 한 나라가 선교의 문을 열면 이미 열려있던 어떤 나라의 선교의 문은 닫힌다. 남 Sudan이 17년간 계속된 시민전쟁으로 1964년에 문을 닫았다가 1970년대 중반에 선교사들이 들어갔다.³⁰⁾ Somalia는 1953년에 기독교 선교사들에게 문호를 개방했다가 1973년부터 다시 폐쇄하였다. Afghanistan에 있던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1973년에 추방을 당했으나 1977년에 이르러 몇명이 입국허락을 받았다. 그러나 1979년의 공산화로 Afghanistan 선교부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Libya, Iraq, Syria 등지는 여전히 폐쇄되어 있

27) Morocco 는 전 국민의 90% 이상이 이슬람 교도들이다.

28) J. Hebert Kane, *op. cit.*, p. 119.29) *Ibid.*30) *Ibid.*

나 천막제조업자(tentmakers)³¹⁾ 라 불리우는 비공식 선교사들은 입국할 수 있는 길이 트였다. Saudi Arabia에서는 수만명의 외국 크리스찬 기술자들이 일하고 있는데 그들은 은밀하면서도 의미있게 복음을 뿌리고 있다.³²⁾

⑥ Indonesia의 자유스러운 선교열매

Indonesia는 이슬람교세계중에서 유일하게 종교의 자유가 상당히 보장된 나라이며 이에따라 선교의 열매가 현저히 많아지고 있다. 기독교 선교 열매면에서 우리는 Indonesia에서 다른 모든 이슬람 세계에서 의 선교열매를 합친것보다 더 많은 수확을 거두고 있다. 이 나라 건국의 이념적기초(ideological)는 Pantjasila라고 하는 5대원칙으로 표현되고 있다.³³⁾

여전히 이슬람교가 전인구의 85%를 차지하는 최대의 종교이지만 정부에서는 Hindu교, 유교, 기독교를 허용하고 있다.

Indonesia는 명목적 이슬람교도와 광신적 이슬람교도의 두 종류가 있다. Indonesia에서는 대규모의 기독교개종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는 두가지 원인이 있다.³⁴⁾

첫째, 광신적 이슬람교도는 중동지방에 많고 Indonesia에는 극소수이며 둘째, 이 나라는 역사와 함께 종교가 여러차례 바뀌었다. 즉, 精靈崇拜(Animism)는 힌두교(Hindu교는 불교에 밀려났으며 불교는 이슬람교에 밀려났던 역사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슬람교가 기독교에게 밀려날 징조로 기독교에로의 개종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³⁵⁾

31) 행 18:3에 나오는 용어로서 당시 선교사인 바울과 평신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같은 직업인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으며 그들은 tentmakers 생활을 행하면서 선교 여행을 다녔다.

32) J. Hebert Kane, *op. cit.*, p. 120.

33) Pantjasila 5대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최고신에 대한 신앙 ② 공평한 인간에

③ Indonesia의 통일 ④ 민주화 ⑤ 사회정의, J. Hebert Kane, p. 120.

34) *Ibid.*

35) *Ibid.*

2) 이슬람권 선교의 낙관론

지난 수세기동안 우리 기독교는 이슬람권은 기독교선교 전방면에서는 도무지 효과적인 무기가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인식되어 왔다. 근래에와서 이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다. 즉, 이슬람권 선교에 대한 조심스러운 낙관설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³⁶⁾ 아마도 이슬람 세계의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때가 도래한 것이라는 인식들이 나타나고 있

36) 1919~1962년까지 이란에서 장로교 선교사로 활동했던 William M. Miller 박사는 이슬람교도들과의 접촉점을 모색하였는데 그것은 곧 인간내면 깊은곳에 존재하고 있는 “갈급함” 또는 “욕구”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슬람 교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해결점은 하나님의 사랑 즉,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이것을 깊은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전해주어야 할것이라고 Miller 박사는 역설하였다. 참고로 Miller 박사는 그의 책 *A Christian's Response to Islam* (Philadelphia,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Co, 1976) pp. 131~175에서 “이슬람교도들에게 기독교복음을 전하는 자세와 우리의 사명”에 대하여 의미있는 제안을 하고있다.

※ 이슬람에게 복음을 전할때의 자세

- ① 무슬림과 친밀해져라. 그들도 우리와 꼭 같이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사건때 모인 무리들이 각기 자국어로 복음을 전해들었던 것처럼 우리 성경을 아라비아어, 페르시아어, 터키어, 우르드어 등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언어를 연구하고 그들의 역사, 교리등에도 친숙해져라.
- ② 이슬람 국민을 사랑하라. 전도에 있어서 영혼을 사랑하는 기본자세는 그리스도의 방법이었다. 사탄은 십자군사건을 통하여 이슬람과 우리 사이에 큰 증오의 장벽을 세워 놓았다. 이 장벽은 그들의 영혼도 사랑하고, 우리가 구원받은것처럼 그들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랑의 빛의 대상으로 생각하므로 무너질 수 있다.
- ③ 막11:23~24, 마 18:19에서 주님이 약속하셨듯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
- ④ 기독교에 관심을 가진 무슬림들에게 성경을 가르쳐라.
- ⑤ 믿음을 고백하는 무슬림들을 기독교우애(Christian Fellowship)속으로 맞아들여라. 세례를 베풀고 그리스도의 가족, 공동체의 일원으로 맞아들여라.
- ⑥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것인가를 분명히 밝혀주어라.
- ⑦ 개종자를 교회에 소개하여 환영을 베풀어라(요17:21).
- ⑧ 기독교 복음의 유일성을 강조하라(행4:12, 마13:45).
- ⑨ 가능한대로 논쟁을 피하라(벧전3:15, 마10:16~20). 즉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하라.

다. 지난 수년동안 이슬람권 선교를 위한 기독교의 몇몇 강좌가 이슬람의 여러나라에서 개최되어 오고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서적들이 나오고 있다. 기독교는 일찌기 볼 수 없었던 이슬람권 선교를 위한 기도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성령께서는 이슬람세계의 영혼들에게 구원을 가능케하는 마음에 심긴 도를 은유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약 1:21) 역사하실 것이다.

⑩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라.

※ 기독교의 이슬람 선교사명

- ① 하나님의 사랑때문이다(요3:16).
- ② 그리스도의 대명령 때문이다(마28:19, 막16:15). 우리는 마 10:14에 나오는 말씀 즉, “복음을 거절하는 마을이나 집을 나설때는 너희발의 먼지를 털어 버려라”는 가르침을 오해하지 말라. 아직도 세계에는 복음을 듣지 못한 6억의 이슬람교도들이 살고 있다.
- ③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다. 사도바울이 로마제국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었기 때문이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 이슬람세계의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자.
- ④ 둘째 대계명 때문이다(마22:37~40). 광야의 만나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필요했듯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복음역시 모든 인류에게 필요하고 해당되는 것이다.
- ⑤ 이슬람교의 부적당때문이다. 즉, 무슬림들에게는 그리스도가 꼭 필요하다.
- ⑥ 이슬람교가 진리를 부인하기 때문이다.
- ⑦ 이슬람이 재기(再起: resurgence)를 꿈꾸고 있기때문이다.
- ⑧ 이슬람세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때문이다.
- ⑨ 인간 개개인의 귀중한 가치때문이다. 아무리 약한 한 인간일지라도..... 심지어 무슬림일지라도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어주신 형제이다(고전8:11).
- ⑩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시험하시기 때문이다. (단5:27). 우리가 이슬람 선교에 무관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가치가 더 이상 없다고 보실 것이다.
- ⑪ 하나님께 이슬람선교에 헌신할 일군을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 ⑫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 때문이다.
- ⑬ 하나님의 구원역사의 섭리와 목적 때문이다. (롬11:25~26.....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 ⑭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약속 때문이다(마24:14).
- ⑮ 이슬람권 선교의 첫 열매들이 수확을 보증하므로!
- ⑯ 복음의 유익한 영향때문이다. 즉, 기독교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슬람 세계가 긍정적이고 유익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도 일부 이슬람권의 극렬강자들은 한때 북으로는 Portugal과 Spain을 비롯해 Austria와 Russia 지역까지 깊숙히 올라가고 남으로는 Africa 중부지역까지 교세가 확장되었던 A. D. 14세기와 17세기의 이슬람교 부흥의 Renaissance를 재현하겠다는 집념을 불태우고 있다.³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안에서 희망적인 전망을 가져보자. Beirut에 있는 TEAM 선교부의 원로선교사인 Harry Genet은 이렇게 전망하고 있다. “지나간 십년을 통해 이슬람세계는 타세계로 노출 증가, 대도시로의 이주, 세속적인 고등교육등으로 말미암아 그들 사회에 있어서 이슬람의 우월감 내지 지배권이 손상을 받아 왔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기독교신앙탐구를 위한 점증하는 문호개방이 부상하게 되었다. 한때 공략할 수 없는 것으로 널리 간주되었던 중동은 지금 승리의 광장으로 분명하게 바뀌어져가고 있는 것이다.”³⁸⁾

그렇다, 중동은 오늘날 변천중에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다가오는 몇십년안에 이슬람이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만큼이나 자기들의 지배아래 묶어 놓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관심거리로 남아 있다.

3) 평신도 선교사의 파송확대

초대교회의 선교활동에 있어서 신자라는 직분외에는 아무런 직분을 가지지 않았던 남여들이 열성적으로 선교에 참여하였다. 이들의 자발적인 선교활동으로 여러가지 혼돈이 야기되기도 하였으나 바울은 복음의 자발적인 전파를 억제하지 않고 오히려 평신도들을 잘 활용하고 조직화 하였다.³⁹⁾ 교회의 평신도들이 복음을 전파해야 할 필요성을 신약성경이 얼마나 강하게 강조하는지는 주지하는 바이다. 우리는 교회의 선교사업에 있어서 가능한한 빨리 무보수의 자발적인 일군들을 사

37) 이 기간이 이슬람교 기원으로는 A. H. (Anno Hegira) 8 세기와 11세기에 해당된다.

38) Ibid.

39) J. H. Bavinck, *An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Missions*, 전호진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0), p. 59.

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유급 전도자들을 사용하지 말고 교회전체가 전도인화 하도록 자극을 주어야 한다. 교회의 평신도들에게 성경에 나타나있는 단순한 복음전파방법을 가르쳐서 복음을 더욱 확장케 해야 한다.⁴⁰⁾ 산업화된 사회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은 그 사회에 직접참여하고 있는 평신도의 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⁴¹⁾

의사, 교사, 기술자, 상인, 외교관, 그리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등으로 활약하는 서구의 그리스도인들이 머물고 있지않은 나라들은 지구상에서 거의 없다. 바로 이 점이 오늘날 비전문적인 선교사(non-professional missionary)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⁴²⁾

전문적인 선교사(professional missionary)들이 침투하기 힘든 위와같은 나라들의 생활전반에 기독교적인 모범과 증거를 전파시키기위해서는 신실한 평신도들을 훈련시켜 파송하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다. 물론 평신도가 전문적인 선교사 또는 안수받은 본토인 사역자를 대신할 수는 없다. 그러나 평신도들은 전문적인 선교사들이 도무지 접근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⁴³⁾

1976년 현재 전세계의 개신교 선교사는 5만 5천 여명인데 이 가운데 85% 이상이 안수받은 목사가 아닌 기술, 행정적인 선교인원이다.⁴⁴⁾ 여러 방언, 특정지역에의 계속적인 선교 가속화를 위해서는 평신도 선교사의 수가 더욱 급증되어야 한다. 평신도선교사를 이용한 이슬람권 선교전략에 있어서 지극히 유리한 점은 지금 한국의 수많은 고급기술

자 및 근로자들이 이슬람교 나라들에 파견되어있다는 사실이다. 1979년 12월 대한민국 외무부의 발표에 의하면, 1979년 12월현재 해외동포의 수는 총 99개국에 286 만명이 된다고 하며 1천명 이상이 살고있는 국가만해도 24개국이라고 발표하였다. 이 가운데 이슬람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수를 보면 Saudi Arabia에 50,061명, Iran에 10,325명, Kuwait에 6,885명, Bahrain에 2,921명, U. A. E. (통일아랍에미리트)에 1,919명, Jordan에 1,411명, Qatar에 1,313명, Indonesia에 1,119명등 8개 이슬람국에만도 약 8만명의 한국인이 파견되어 있다. 한국교회는 이 숫자의 15~20%가 크리스찬 평신도라는 사실을 간파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교회는 이들을 잘 훈련시켜 선교의 사명을 안고 자기들의 영역에서 지혜로운 이슬람권 선교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장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4) 이슬람사회와 복음의 Contextualization

근래의 서구 기독교는 이슬람권 선교를 위하여 이슬람사회에 접근하는데 다음과 같은 두가지 방법을 주로 적용해오고 있다.⁴⁵⁾

① 학문적인 고찰(Scholarly Examination) : 이슬람 종교와 문화 그리고 역사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상호불신의 해소, 관용과 이해 그리고 상호관심을 증진시키는 바탕위에서 선교를 모색한다는 접근방법이며,

② 자선사업(works of charity)을 통한 방법 : 직접적인 선교가 불가능한 지역에 학교, 병원, 피난민 수용소, 구호소등을 설립하여 이슬람사회와 피부로 마찰하면서 서서히 선교를 모색한다는 방법이다.

물론 위와같은 방법들 역시 우리 기독교가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야 할 과제이지만 최선의 해결책은 못된다. 사실 속사람이 먼저 변화하지 않고는 인간에게 문명화는 대단한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이 사실은 수많은 나라에서 실험되었다. 예외없이 복음이 문명에 선행하며 문명

40) *Ibid.*, p. 217.

41) S. Neill, *A History of Christian Missions*, 홍치모, 오만규 공역, (서울 : 성광문화사, 1980), p. 762.

42) *Ibid.*

43) *Ibid.*, p. 763. 이점에 대해서는 S. C. Nill과 H. R. Weber가 편집한 *The Laymen in Christian History* 라는 좋은 책이 있다.

44) 김유식, '시급한 선교과제', *기독교신보*, (1979. 3. 17). 1980. 10. 7~8일까지 개최된 본교단(예장고신)의 新生 서울노회의 첫정기노회에서는 '평신도선교사' 용어 문제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어 장시간 토의하였으나, 본노회에서 상기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결말 짓지 못하고 총회에 문의하기로 결정짓고 말았다

45) G. E. Marrison, *op. cit.*, pp. 70~73.

이 복음에 선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⁴⁶⁾ 저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Hudson Taylor가 중국 선교방법의 Contextualization으로서 ① 중국어 사용 ② 중국문화 습득 ③ 중국식복장 착용을 채택하여 적용했으나⁴⁷⁾ 여기에는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을 기억하자.

결 론

우리는 근래에 에큐메니칼 선교론⁴⁸⁾의 위험성에 직면하고 있다. Paul Tillich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 기독교가 타 종교와의 접촉을 시도하려고 할때 그 민족의 Nationalism, Socialism, Liberal Humanism 등에 부딪치게 된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타 종교와의 접촉을 앞에 놓고 우리 자신의 전통이나 관습을 고집하느라고 그 좋은 기회를 무의미하게 그르쳐버려서는 안된다.”⁴⁹⁾ 또 1979년 7월 11~13일 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 C. C. A. (아시아교회 협의회)의 ‘이슬람선교 연구소’의 세미나에서는 에큐메니칼의 이슬람선교 접근방법으로 제3의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동역적(co-operation) 정신으로 인간사회에서 공통된 인간적 책임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 20세기초에 시작된 선교를 위한 타종교와의 대화는 공존과 상호협조를 위한 대화에서 진일보하여 타종교속의 진리를 모색

46) S. Neill, *op. cit.* p. 390.

47) *Ibid.*, p. 440~442.

48) 1952년 독일에서 열린 선교대회에서 생겨난 개념으로 바로 W. C. C. 의 선교관으로 등장하였다. 에큐메니칼선교론의 핵심적인 내용은 ① Secularization of Christianity ② Cosmopolitanization of Christianity ③ Syncretization of Christianity....., J. H. Bavinck, *op. cit.*, pp. 304~305.

49) Paul Tillich, *Christianity and the Encounter of the World Religions*, N. Y.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6), pp. 27~97.

50) W. C. C. 선교론에 의하면 우리는 지금 복수적 사회에 살고 있으며 모든 종교는 다 진리이며 하나님께 도달하는 길이 될수 있다고 한다. 전호진, 현대선교동향과한국교회의 사명, 크리스찬신문, 1979. 7. 1.

할 정도로 W. C. C. 에 양보하고 말았다.⁵⁰⁾

우리는 복음의 효과적인 현지침투를 위하여 선교방법 내지 접근의 Contextualization도 고려해야 하겠지만 과도한 양보 내지 타협은 복음의 진수를 흐리게할 위험성이 야기되는 것이다. 우리는 기독교 아닌 타 종교나 세계관도 기독교를 믿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원에 이르는 길일 수 있다는 W. C. C. 적인 선교접근의 Contextualization 을 배격한다. 세계의 여러 종교와 Ideology도 기독교의 이념이나 희망, 사회진전과정을 그들의 정신속에 담기만하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대신 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배격한다. 그것이야말로 종교 혼합주의(Religion Syncretism)요 반기독교(Anti-Christianity) 사상인 것이다.⁵¹⁾

우리는 차라리 복음 그 자체만을 가지고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만을 전하자. 생명원은 유일한 구원의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이라는 사실을 과감하고 명료하게 선포하자. J. Anderson은 기독교의 유일성 내지 우위성을 타 종교에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은 특성들을 주장하였다.⁵²⁾

- ① 기독교는 유일한 복음이다(a unique proclamation).
- ② 기독교는 유일한 구속이다(a unique salvation).
- ③ 기독교는 유일한 사실이다(a unique disclosure).
- ④ 기독교는 유일한 이름이다(no other name).

우리는 이러한 주장에 굳건하게 서서 이슬람세계를 향한 선교의지를 불태워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의 이슬람교 포교활동을 주목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 되어져야 한다.

(Th, M., D. Min Cand. 마산제일교회) 담임목사

51) Peter Beyerhaus, *Mission: Which Way? - Humanization or Redemption* 김남석역, (서울: 한국성서협회, 1976), pp. 136~137.

52) J. N. D. Anderson, *Christianity and Comperative Religion*, (Illinois: IVP. 1970), p. 5.

참 고 문 헌

Anderson, J. N. D., *Christianity and Comparative Religion*, Illinois: IVP., 1970.

Arberry, A. J., *Religion in the Middle East*, London: Cambridge Univ., 1976.

Bavink, J. H., *An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Mission*, 전호진 譯, 서울: 성광문화사, 1980.

Beyerhaus, Peter, *Mission: Which Way? — Humanization or Redemption*, 김남식 譯, 서울: 한국성서협회, 1976.

Jonsen, G. H., *이슬람의 도전*, 조형준 譯, 서울: 신현실사, 1980.

Kane, J. Hebert, *A Concise History of the Christian World Mission*, Grand Rapid: Baker Book House, 1980.

Miller, W. M. *A Christian's Response to Islam*, Philadelphia: Pres. and Reform. Pub., 1976.

Neill, S., *Christian Faith and Other Faith*, London: Oxford Univ., 1970, *A History of Christian Mission*, 홍치모·오만규 공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0.

Tillich, Paul, *Christianity and the Encounter of the World Religion*, N. Y. : Columbia Univ., 1966.

하도래, “기독교문화와 복음의 확장” 고신대 논문집 제 8 집, 부산: 고신대학 출판부, 1980.

한국 이슬람교 중앙연합회편, *한국 이슬람 25년사*, 서울: KMF, 1980.

Time, January 7, 1980.

기독교신보, 1979년 3월 17일.

구약성경에서 살펴본 결혼제도에 대한 고찰

박 종 칠

서 론

그리스도인이 양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은총을 일부다처제 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릴 수 있을까 하는 의혹이 생기게 된다. 나는 이번에 이 문제를 조사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이 논문은 내가 발견한 사실을 기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결혼제도가 창 2:18-25에서 나타나듯이 인간의 기원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인류학적인 문제), 이상하게도 “문헌에 있어서 일부다처제와 일부일처제의 문제를 다루기를 소홀히 하고 있어서 거의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주제를 결혼이나 인류학의 일반적인 범주에 넣어

1) H. Thielicke, *성의 윤리*, John W. Doberstein 번역,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64), p. 91